

▶ 군산 이당미술관 '치유의 미술 - 최경수 컬렉터' 전

수집해둔 예술작품 시민들과 향유하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컬렉터(수집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잦은 전시에 지인들의 도움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솜구치는 창작의욕을 가슴에만 담아둘 수는 없다. 고단하고 배고프지만 전시를 통해 한 꺼풀씩 영혼의 한 귀퉁이를 찾아 헤맨다. 이럴 때 컬렉터는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다. 작가의 창작의욕을 불태워주는 에너지원이다.

도내의 대표적인 미술 컬렉터, 최경수 전주 한 마음병원장의 소장품을 대중과 향유하는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최경수 원장(64)이 미술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은 30여 년 전 지인으로부터 작품 한 점을 선물 받으면서부터였다. 목동이 소를 타고 귀가 하면서 한가로이 피리를 부는 그림이었는데, 그림은 많은 상상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우울할 땐 처량한 피리소리가, 기쁠 땐 환희의 송가가 들려왔다. 또 가끔은 자신이 소등에 올라타는 기쁨도 누리보면서 그림과 자신이 하나가 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같은 예술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병든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었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담는 마음이야말로 치유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론 틈틈이 전시장을 찾았고 자연스레 작가

박래현 등 30여 작가 작품 선별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시

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작품을 수집할 때는 비싼 것,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쫓는다"며 "10년 뒤 소장품을 다시 꺼내봤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됐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꿈꾸는 미술문화는 예술의 생활화다. 꼭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끼는 문화, 이를 테면 가족사진을 걸어 놓고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번 전시는 최 원장의 많은 수집품 가운데 회화를 위주로 선보인다. 박래현·유휴열·하반영 등의 유화뿐 아니라 나상목·방의걸·이철량 등의 수묵, 산수화 그리고 항일 애국지사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글씨까지 30여 작가의 작품 37점이 전시된다.

강용면 이당미술관 부관장은 "컬렉터와 미술관의 협력 관계 속에 치러지는 이번 특별 전시회를 시발점 삼아 앞으로 매년 수집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내 컬렉터의 역할을 일



유휴열 '생놀이'



박래현 '시승'

깨우고 동시에 오랜 기간 공개되지 않았던 시대의 대표 걸작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치유의 미술-최경수 컬렉터'전은 오는 29일 ~6월 25일 군산 이당미술관에서 열린다.(월·화요일은 휴관). /정해은 기자



전북대 윤인상 '빈방' · 채한영 '선아의 방'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서 상영

전북대 윤인상(프랑스학과 3년), 채한영(영어영문학과 4년) 학생이 제작한 단편영화 두 편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부문에서 상영된다.

이들은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을 통해 개설된 인문융합학부 영상미디어 전문전공 과정을 통해 '영화영상 제작 실습', '극작세미나-시나리오 창작실습', '현대 영화 이론' 등을 수강하며 인문영상연구소 영화제작 워크숍에 참여해 '빈방' (연출 윤인상)과 '선아의 방' (연출 채한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윤인상의 '빈방'은 두 연인의 일상을 담담한 시각으로 표현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닿아 전해지고 갇혀있는 상황을 그려낸다.

채한영의 '선아의 방'은 할머니를 여의고 혼자 파지를 주우며 사는 선아에게 찾아온 한 남자와의 이야기를 담은 14분 분량의 단편이다.

특히 채씨는 지난해에도 (사)전북독립영화협회 마스터와 함께 하는 단편영화 제작 스쿨 6기 연출자로 선발돼 '사막 한가운데서'라는 작품을 연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며 2년 연속 영화제에 작품을 걸게 됐다.

채씨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인문영상연구소 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한 지원이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무주 최북미술관서 '진주 김상곤 다완 개인전'

'진목 김상곤 다완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2012년부터 무주 반딧불전통공예문화관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목 김상곤 선생이



무주에서 여는 첫 개인전으로, 그간 전통 방식으로 자기를 빚고 가마에 구워 완성한 다완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김상곤 선생은 "정호 다완(가루로 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사발)을 중심으로 진사 다완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기를 빚으면서 좀 더 옛 것에 가까운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재연해 보고자 노력한 것들로 다완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전통공예공방을 조성·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인 육성과 옛 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방 인근에 도예인들의 염원을 담은 전통가마를 조성해 작품 활동을 돕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일 예당서 군산시립합창단 부라보콘서트

군산시립합창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 27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80분간의 세계일주'란 부제로 제3회 부라보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 지휘자와 함께 아프리카/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4개 대륙을 횡단하며 각 나라별로 잘 알려진 민속음악을 선정하여 세계의 합창음악여행을 떠나보자는 의도로 기획돼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 시작은 ▲아프리카/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와나나라 카', 중국인요 '모리화', '주 기도문'을 박헌호(당진시립합창단 부지휘자)의 지휘로 ▲아메리카 'Dry Bones', '꿈속의 제니', '베사메루'를 박지훈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민속음악, '아 목동아(아일랜드)', '꽃의 계절(러시아)', '헝가리 무곡' 등의 작품을 김영해 지휘자의 지휘로 시민들에게 가슴 뭉클한 향기로운 봄의 기억을 선물하며 세 번째 부라보콘서트의 막을 내리게 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부라보콘서트는 따스한 봄바람에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4월에 합창으로 음악여행을 떠나보자는 의도로 준비하였으며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접하면서 가족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 공연으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좌석권 배부는 전석 무료로 공연당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군산=정현 기자



영화와 음악의 절묘한 콜라보 이뤄진다

소리문화전당 '장면의 음악들' 개최
국제영화제 상영작 차용 음악으로 표현

28일 '신현희와 김루트'
29일 '스칼렛 모조핀' · '롱디'
30일 '9와 숫자들' 등이 공연

소리문화의전당이 선정한 아티스트들이 영화를 주제로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공연 '장면의 음악들'을 개최한다.

공연을 위해 아티스트들은 전주국제영화제 '2016전주국제영화제'작, '우리 손자 베스트' '우아한 나체들' '눈발'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의 영상 또는 대사를 분위기를 차용하여 음악으로 표현하게 된다.

첫 공연일인 28일은 최근 역주행 차트의 주인공 공 명당 어쿠스틱 듀오 '신현희와 김루트'의 무

대, 한국사회의 속내를 궁극의 인간애로 감싸 안는 영화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조금 더 유쾌하고 발랄하게 해석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신선한 해석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태양의 후예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현주나와 프로듀서 dub이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 '스칼렛 모조핀'과 신스팝 듀오 '롱디', 두 팀은 영화에서 표현되는 대립과 갈등의 답답하고 폐쇄적인 감정을 이들과의 모던하고 트렌디한 음악으로 그려낸다.

30일 무대는 영화의 공허한 감성을 고스란히 이어갈 '9와 숫자들'이다. 이들은 2009년 앨범 발매 이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꾸준히 수상하고 있는 팀으로 대한민국 음악인의 숨겨진 보물 같은 팀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영상을 통해 그리움과 아련한 서정미를 표현한다.

공연은 전석 2만원. /정해은 기자

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배우 김민준 · 최송현 확정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민준과 최송현이 확정됐다.

폐막식 사회를 맡은 김민준은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 '예의 없는 것들' '푸른 소금' '후공: 제왕의 집' '톱스타'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민준과 사회자로 발탁된 최송현은 KBS 32기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영화 <인사동 스텐달>로 데뷔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으며, 연기자로서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배우 김민준과 최송현은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는 폭넓은 연기 경력뿐 아니라 안정된 진행 능력까지 인정받은 만큼, 영화제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두 사회자 모두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깊은 인연을 쌓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김민준



최송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공모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상품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전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700만원을 포함 총 5600만원을 들여 전통놀이를 현대화하여 체험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은 대한방과후협회 전북지부가 '향교는 인생놀이터'라는 주제로 흥덕향교에서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2회에 걸쳐 공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구슬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재미있게 체험하고 익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통문화 상품개발 사업은 문화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개선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에는 고창 민예품연구회가 선정되어 고창음식 모양의 한지 등을 지역 전통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